

# 입학하면 대기업 취업까지 보장 이공계 취업난에 '계약학과' 인기

대기업-대학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13개 대학, 18개 학과 780명 선발  
이공계 특성화대, 수시선발 90%  
졸업 후 일정기간 기업 근무 의무

과거 문과에 국한됐던 취업난이 이공계로 번지면서 취업이 보장되는 이공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학과로, 주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 ◆올해 성균관대 계약학과 추가 설립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은 13개 대학, 총 18개 학과에서 실시한다. 총 선발인원은 780명이다. 올해 성균관대에 계약학과가 추가로

### 2026년 주요 채용형 계약학과

대학	학과	계약기업	인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30
	차세대통신학과	삼성전자	30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현대자동차	50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삼성전자	70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삼성전자	50
	배터리공학과	삼성SDI	30
	정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	20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100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LG디스플레이	30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삼성전자	100
POSTECH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40
UNIST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40

설립되면서 전년도보다 1개 모집단위가 늘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7월 삼성SDI와 '배터리공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해 2026학년도 첫 입학생을 맞는다. 10년간 매년 30명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에서 계약학과 110명을 선발한다. 숭실대는 정

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에서 20명을, 한양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에서 40명을 선발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가장 많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수시 비중이 높다. 선발인원 총 780명 중 약 600명 가량을 수시로 선발한다.

특히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은 90% 가까이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POSTECH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40명 전원을 수시로 뽑고, UNIST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선발인원 40명 중 35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 ◆“입학=진로”, 적성 고민 우선해야”

계약학과는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 이른바 '입결(입시결과성적대)'과 중원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쟁률도 다른 학과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충원률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상향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올해 의대 정원 이슈도 계약학과 입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4개 권역 개소 56개 전문지원기관과 맞춤형교육 '맞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56개 전문지원기관과 협력해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지난달 27일 남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강동송파, 성북강북, 중부교육지원청에 차례로 개소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 난독 및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난독 지원 기관 27곳과 경계선 지능 지원

기관 2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각 기관과 협력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영역별 전문 진단검사 ▲ 학습 성장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 ▲교사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다층적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요인이거나 난독,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통합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진단 결과를 판독하고 심층 분석한 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각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 성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부동산 거래량 증가... 주거용 강세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거래 13.3% ↑ 덕양·일산동구 증가, 일산서구 감소

고양시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1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상업 및 공업용 부동산, 토지·임야 등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행정구역별로는 덕양구(9.8%)와 일산동구(24.9%)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반면, 일산서구(-8.9%)는 감소세를 기록하며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덕양구는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거래가 28.9%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을 주도했다. 또한, 덕양구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토지·임야 거래

도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전체 3개 구 중 가장 높은 24.9%의 거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아파트 거래량이 35.9% 급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공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41.4% 증가하며 상업·산업 부문에서도 활기를 띠었다.

일산서구는 다른 구와 달리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감소세를 보였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32.5% 증가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공업용 부동산 거래는 54.3% 급증하며 일산동구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민 5명 중 1명 '손목닥터9988' 쓴다

사업 5년차, 참여자 194만명 넘어 60·70대 참여자, 높은 걸음수 기록  
오늘부터 '갤럭시 핏3' 특별할인도

사업 5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194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민 다섯 중 한 명이 이용 중인 셈이다. 지난 4년간 참여자 누적 걸음 수는 총 3조4373억 보다. 시는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더 많은 시민이 손목닥터 9988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손목닥터 포인트로 스마트 밴드 '갤럭시 핏3' 구매 할인 기회를 제공한다 고 18일 밝혔다.

5000포인트 이상 보유한 손목닥터 회

원이라면 '갤럭시 핏3'를 특별할인가인 5만5000포인트(소비자가 8만9000원)로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5만대씩 총 10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난 4년간 '손목닥터998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누적 걸음 수는 3조4373억 보로, 이는 성인 보폭 기준 약 24억km에 해당한다. 지구 5만 9973바퀴 거리로,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약 43억 배에 맞먹는 규모다.

연령대별 이용 분석 결과, 지난해 70대 이상 참여자들이 특히 높은 걸음 수를 기록했으며 60대 이상 참여자도 꾸준히 높은 걸음 수를 유지하는 것을 확

실했다.

2년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에 참여한 4085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참여자 주간 걸음 수는 2022년 5만 9814보에서 2024년 6만5441보로 9.4% 증가했고, 하루 걸음 수는 같은 기간 9332보에서 9774보로 4.7% 늘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스마트밴드(갤럭시 핏3) 등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손목닥터 9988을 걷기뿐 아니라 건강장수센터, 금연클리닉, 당류 저감 등을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수수료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서울시,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 나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 등 혜택 강화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업소 수수료 부담을 덜

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

젝트'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땡겨요'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배달 앱 운영사·시범자치구·소상공인 단체·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휴전 깨지나...가자지구 광범위 폭격에 수백여명 사망  
▲불법 이민자 261명 추방한 트럼프, 엘살바도르에 감사  
/사진 뉴스시스

▲유엔 보고관 "북한 주민 45%가 영양실조...식량 불안 지속"  
▲중국 관영매체 "미국 달걀값 폭등은 관세 남용의 역효과"

▲영·프 "러시아, 무조건적 휴전으로 평화 의지 증명하라" 푸틴 압박  
▲홍콩 기업 파나마 운하 매각에 중국 고위대표단 파견 대응 나서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8 | 해질 / 18:43

3월

**19일** (수)

음력 : 2월 20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6/7

동두천 -5/8

가평 -5/8

파주 -6/8

서울 -2/7

양평 -3/8

인천 -1/6

수원 -2/6

용인 -2/6

평택 -4/7

백령도 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